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

(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38
----------	-------

발의년월일 : 2020. 12. 2 .

발 의 자 : 나정숙 의원 등 21명

1. 주 문

-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매립장(‘가칭’ 인천 에코랜드) 예비 후보지 선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안산시 대부도와 연접한 영흥도에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을 발표한 상태로,
- 인천광역시청 기준 최서남단에 33km나 떨어져 위치한 영흥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인천광역시민 다수의 반대를 차단하고자 이루어진 결정으로 예상되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기환경 악화와 침출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으로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번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은 후보지에 연접한 안산시 대부도 주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및 주변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결정의 결과물로서,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인천광역시장, 용진군수, 시흥시장, 용진군의회, 시흥시의회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시는 쓰레기 독립 선언을 통해 지난 11월 12일 안산시 대부도와 연결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자체매립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는 안산시 대부남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불과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척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흥도는 선재도와 대부도를 거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영흥 주민과 관광객은 안산시 대부도를 통과해야지만 진출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청에서 영흥면 외리에 위치한 예비 후보지까지는 직선거리로 33k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상태로, 인천시민 다수의 반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광역시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고립된 도서 지역을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연결한 지방자치단체인 71만 안산시민의 정서와 예상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흥도에는 이미 수도권 전력의 약23%를 공급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총 발전용량 5,080MW의 규모로 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은 2019년 기준 연간 소비된 양이 1천4백만톤에 이르는 실정으로 유연탄 연소에 따른 비산재와 대기질 악화의 영향과 함께, 석탄 원료를 운반하는 중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시설물 파손의 피해도 안산시민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또다시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이로 인한 추가 피해의 영향은 안산시민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부도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광지로써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9년 방문객이 1천4백만명에 달하는 상태로, 연결지인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광객이 급감하여 대부도 주민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숙박업, 요식업, 농업,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

셋째, 대부도에는 12개의 어촌계가 형성되어 1,107가구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도 어민들은 1톤 이하의 소규모 영세 어업 활동에서부터 바지락, 김 양식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특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의 유출사고가 발생된다면 대부도 인근의 청정해역은 오염되고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부도에는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형성된 해수호인 시화호가 있으며 시화호 내부에는 안산갈대습지가 위치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는 1,037,500㎡ 규모의 인공습지로 수생식물과 야생화를 비롯한 약29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150여종 15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여 2019년 기준 85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대부도 상동연안 1.39㎢, 고랫부리연안 3.14㎢은 2018년 10월 국제습지협약기구의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지역이 위치한 곳으로써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척의 거리에 자연환경의 훼손 요인으로 작용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주변 입지 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로 판단된다.

71만 안산시민들은 1986년 시 승격이후 30년 이상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도시로써 각인되었던 오염된 도시이미지 탈피와 시화호를 비롯한 인근 해역의 수질 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대부도는 천혜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안산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안산시 대부도에 연접한 영흥도에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정한 쓰레기 독립을 위한 자체매립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

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번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민의 대의 기관인 안산시의회는 71만 안산시민들이 30년 이상 대기 환경개선과 하천 및 시화호 수질 개선에 기울였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부도를 천혜의 자연환경 보고와 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